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대장암 적정성 평가 ‘4년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대장암은 국내 암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대장암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252개 의료기관에서 실시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수술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시행률 ▲생존과 관련 있는 최소한의 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 등이다. 또, ▲수술 후 8주 이내 항암 화학요법 시행률 ▲수술 후 사망률 등 총 21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외과,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상호 협진을 통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종합점수 중별 평균 94.84점, 종합점수 96.16으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고양시 킨텍스 내 공사현장 직원 대상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 이무용 교수는 지난 18일 킨텍스 원시티 내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근로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고혈압을 주제로 고혈압 치료의 중요성과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고혈압 치료의 중요한 역할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적게 먹기, 나트륨 함량 줄이기, 금연, 절주, 매일 규칙적인 운동 등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고혈압의 원인, 증상 및 고혈압의 잘못된 상식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매달 다양한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의정부시 송산 노인종합복지관 다녀와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22일 2014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 의정부 소재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송산노인복지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사회복지를 실천하며, 모든 행동의 근본을 효(孝)에 두며, 효(孝)를 실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생활에 목표를 두고 어르신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지관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가정의학과 성낙진 교수를 비롯하여 응급의학과 이승철 교수, 한방재활의학과 장세주 전공의 등 총 17명의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1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문진 등 다양한 양·한방 의료봉사를 펼쳤다.



덕양구 달빛마을 경로당 한방 무료 이동진료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5월 17일 덕양구 보건소와 함께 화정동에 위치한 달빛마을 1단지 경로당을 방문해 한방 무료진료를 펼쳤다.

매월 일산 소재 보건소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이동 무료진료는 침 시술 및 문진 등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펼쳐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본원은 지역사회에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생활 습관 교육 및 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환자안전을 위한 고위험 의료기기 예방점검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원내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예방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예방점검은 총 189대의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안전점검, 고장 수리 조치를 통해 수술, 검사 등 환자치료 시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또한,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환자 및 사용자에게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험요소와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의 등급을 일반 의료기기와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점검이 이루어진다.

물류팀 의공 담당자는 “의료기기는 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점검은 년 2회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으로 의료기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예방점검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